

영암 장애가족의 비극...또 안타까운 '가족 살해'

장애 아들 3명·부인 살해 후 음독 5명 사망... 남편 성범죄 혐의 입건 친인척 왕래 없어 사실상 고립된 듯 지난해 담양 세모녀 사건과 유사 전문가 "자식은 부모 소유물 아냐" 촘촘한 복지 통해 재발 막아야



영암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사망사건' 2차 현장감식이 진행된 지난 16일 경찰이 범행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영암의 한 농가에서 50대 가장이 부인과 장애 아들 3명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3월 담양 '세모녀 사건', 5월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가족 참극'이 발생해 일그러진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께 영암군 영암읍의 한 농가에서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이 연락이 되지 않자 일가족의 집을 찾았다가 주택 창문 등에 혈흔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가장 A(59)씨와 아내 B(56)씨, 20대 3명의 자녀(29·26·23)의 시신이 발견됐다. 집 안방에서 2명의 자녀와 B씨가 숨져있었고, 나머지 자녀 한 명과 A씨는 거실에서 숨져있었다. 경찰의 두 차례에 걸친 현장감식과 1차 부검 결과 가장 A씨가 일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가족살해'로 추정되고 있다. 가족 4명의 사인은 흉기에 의한 타살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출입문이 잠겨있는데다 외부 침입 정황이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가족을 해치고 자신은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1차 부검결과 사인은 약독물사로 추정됐고 집에서 독극물 병도 발견됐다. A씨는 이달 4일 인근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가장에 의해 숨진 가족들은 장애 때문에 사실상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숨진 20대 3명은 모두 등록장애인이고 고도 장애를 앓고 있었다. 한 명은 거동을 못하는 상태이고, 2명은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에 미달했다는 것이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다. 마을 이웃주민 김모씨는 "B씨도 외형적으로 조금 말랐고 거동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말이 어눌하

고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일가족 사망에는 장애인 자녀들의 선택보다 A씨의 선택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3명의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들을 부양하는 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왕래하는 친인척이 거의 없어 사실상 고립된 가족이었다. 아내가 장애인 자녀 3명의 양육을 전담하고 A씨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지탱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3월 담양에서 4억 여원의 사기를 당해 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려던 담양 세모녀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5월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부모와 함께 숨진 조유나양 사건도 마찬가지다. 가족 살해가 잇따르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모가 자식의 소유자라는 비뚤어진 사회통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발상이 지배적"이라면서 "고립된 가족이 많은 채무가 있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추가 사소한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뇌물 받고 금고 심의정보 유출 위증한 전직 공무원 등 벌금형

광주시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서 위증한 광산구 장학회 간부와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환)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광산장학회 간부 A씨(68)와 전직 광산구 고위 공무원 B(6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B씨의 아들 C씨(39)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은행 관계자를 B씨에 소개하고 C씨가 신용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뇌물 공여나 특혜 제공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위증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과의 관련성이 높은 점등을 비춰보면 사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산구는 2018년 10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하지만 농협측이 금고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으며 법원에 금고지정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의혹이 일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재심을 거쳐 광주은행이 광산구 제1금고로 선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직원들에게 잦은 폭언·욕설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판결

직장 동료들에게 잦은 폭언과 욕설을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갑질, 폭위유지, 성실의무 등을 위반으로 전남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견방지다", "씨가지 없다" 등을 비롯해 욕설을 하고 여성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 A씨는 파견근무 당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전남도와 별개인 파견기관에 근무할 당시 행위로 징계를 의결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견근무시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 "A씨가 동료 협박,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계기준에 부합해 A씨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문 남는 영암 일가족 사망사건

영암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가장 A(59)씨가 가족을 해치고 음독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범행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15일과 16일 찾은 영암의 한 마을 주민들은 모두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A씨는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다.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씨의 범행동기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A씨의 성범죄 입건이다. A씨가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자 비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성범죄 수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출두 일정을 조율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관으로 인한 범행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범죄 혐의 변호사 선임해 놓고 극단 선택? "장애 아들 3명 부양 힘들다" 종종 말하기도

주민들 "긍정적이고 돕는 것 좋아했는데... 믿을 수 없어"

또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져 가족불화를 겪은 게 사건의 단초가 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A씨가 최근 집에서 가족과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A씨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 외에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가 종종 장애를 가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것이 힘들다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하나같이 A씨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김씨가 아버지 대부터 50년 넘게 인근 마을에서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며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아 마을 주민들 집에서 전기, 보일러가 고장나면 항상 먼저 나서서 고쳐주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C씨는 "김씨가 지난 2021년부터 마을 이장과 함께 마을 대소사를 관장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임

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2년 임기를 채우고 올해 다시 재선될 만큼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 집과 15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D씨도 "A씨는 오가며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을 뿐 아니라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유쾌한 사람이었다"며 "인근 마을에서도 어르신들이 A씨를 매사 긍정적이고 사람 좋다고 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과도 매일 불어다녀 "형·동생"하던 단짝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뿔었다. 또 "성범죄 신고자의 집도 A씨가 구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해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영암·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쿠폰!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